

서울지역종친회 복다림 행사 개최



8월 10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권승구 전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성 고문, 권태복 고문, 권오찬 고문, 권준옥 고문, 매회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금병현 문객, AI 팔고조도 족보연구회 권정수회장, 권수용 대종회 부회장 겸 상임위원, 권오수 대종회 부회장 겸 전국가스안전협회 회장, 권행완 대종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권정찬 서울산악회 회장,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순휘 사무국장, 권지은 총무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다림 행사가 개최되었다.

권영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바쁘실텐데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 평소 애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럴 때니 한번 뵙자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다림 행사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시면서 맛있는 드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많은 내빈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찬금까지 도와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종회 제일 어른이신 권영창 회장께서 작년 복다림 행사 때에도 축사와 함께 금일봉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시고 서울지역종친회 발전의 축하문과 금일봉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승구 전 회장은 축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종친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소 중에 권오수 부회장은 권행완 편집국장에게 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안동권씨 종보’를 전국 대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 특히 한문학과가 있는 대학부터 보내면 홍보도 되고 젊은 학생들에게 안동권문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권씨 종보’를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안동권문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뿌리알기 시리즈’를 기획하여 각 파별 파조를 시작으로 종시조 등 현조(賢祖)들을 파별로 연재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추밀공파면 추밀공파, 좌윤공파면 좌윤공파 등 본인이 속한 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 휘(諱)는 뭐고 시호(諡號)는 뭘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해설해 주는 기사도 필요하고 이런 기사는 반복적으로 내보내 주면 좋겠다.

그래야 가족성도 좋아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며 안동권문에 대한 자긍심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동권씨 후손들이 세계를 누비는 주거지를 보면 주로 경상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영남, 정읍, 금산, 목포 등 호남과 충청지역에도 꽤나 많은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후손들이 세계를 누비는 지역을 찾아 지역별로 소개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친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점심으로 도가니탕과 갈비탕을 먹었다. 모두 건강을 기원하며 복다림 행사를 마무리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정

▲ 권영하 수석부회장이 2023년 10월부터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서울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 권영희 세무사가 지난 6월 부산세무사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여성세무사가 회장에 당선된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권영희 회장은 1979년 제16회 세무사 고시에 합격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개업한 당사자다. 일반 기업체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주경야독 형설지공으로 이뤄낸 성취였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여성 1호 개업세무사로 제2대, 9대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제7대 부산세무사고시회장, 부산전지역세무사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권영호(84세) 스페인 인터볼고 회장이 8월 28일 ‘제10회 장보고대상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26세의 나이에 원양어선을 타며 바다와 인연을 맺었다. 1986년 동영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만 명에게 150여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1996년에는 고 안익태 선생의 유택을 매입, 정부에 기증했다. 중국 지린성에 1억 위안(약 193억 원)을 기부해 단과대학과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동백장과 금탑훈장을 수상했고 중국 중앙정부의 우의상과 스페인 국민훈장 등을 받았다.

▲ 권병희 신임 대구지방공용노동청장이 취임했다. 권 신임 청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수료 및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3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국제노동기구(ILO) 정부그룹 부의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권석윤 책임연구원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권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1987년 식물학 학사, 1989년 식물학 석사, 1996년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생명연에 입사해 융합생물소재연구부장, 부원장 등을 지냈고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이사, 한국바이오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월 14일부터 3년이다.

▲ 권태윤(70년생) 제55대 종로세무서장이 20일 취임했다. 권태윤 세무서장은 포항고 출신으로 세무대학교(11기)를 졸업했다.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를 시작으로 서울청 조사3-관리, 국제청 전산정보관리관 빅데이터센터, 양산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잠실세무서장을 역임했다. 납세자에게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로, 직장 동료들과는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 권영설 전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이 한국섬유신문 신임 대표에 선임됐다. 한국섬유신문은 1981년 7월 창간 이후 44년간 한국 섬유·패션 산업의 흐름을 기록해온 대표 전문지이다. 권영설 신임 사장은 1991년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기자, 논설위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2021년 형지그룹 기획조정실장과 형지엘리트 사장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연세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MBA)했다. 고향은 안동이다.

권태윤 부회장, 상임부회장과 상임위원 임명

권영창 회장은 권태윤 부회장을 상임 부회장과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이는 권영우 상임부회장이자 상임위원이 건강상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권태윤 상임부회장은 “존경하는 권영창 회장을 충실하게 보필하고 안동권씨 대종회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서로 단결하여 안동권문의 남·여·노·소와 자라나는 권문의 미래세대까지 하나가 되어 안동권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순천종친회 이치대첩제 참석



권태환 회장을 비롯한 순천종친회 회원 30명이 제433주년 이치대첩 기념제에 참석했다. 권태환 회장은 부친 권준표 회장이 연로하여 문중 업무에서 은퇴하자 대를 이어 순천종친회를 이끌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여행의 시작과 끝을 공항리무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문의 ☎ 2664-9898, (야간)2665-1094
http://www.airportlimousine.co.kr